



# 살맛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배한성/방송인, 교통방송「출발 서울대행진」, KBS「가로수를 누비며」MC

**우** 리 가족은 2주일 마다 안동에 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안동 MBC에 '배한성의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토크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서다. 아내는 수학여행가는 소녀처럼 매번 여행가방을 챙긴다. 꼼짝없이 도시생활 속에 갇혀 지냈던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는 듯이 하회마을로 달려가고 주왕산을 찾아가고 달기약수에 가서 닭백숙 맛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여덟 살짜리 막내녀석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나섰다가 녹화장소인 '옛날이야기'라는 카페의 모닥불에 감자도 구워먹고 강아지와 뛰어 놀고 도토리도 줌고 밤송이도 까보고... 도시에선 맛볼 수 없는 또다른 동심의 세계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나역시 새로운 삶과 만나는 보람에 빠져있다.

초대손님들의 다양한 인생이야기 속에서 진솔한 희노애락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 소개된 안동의 자존심이라는 안동 간고등어를 36년 동안 함께한 김선생은 '난 고등어 밖에 모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 제작진을 애타게 했다.

그러나 30여 년 청춘을 고등어에게만 바친 인생이니 고등어밖에 모른다는 말은 참말이 아니겠는가.

안동민속박물관장되시는 분은 박물관의 '박'자도 모르던 공무원이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고향 박물관에 발령을 받아 뜬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안동찾기에 애쓴 결과 말단에서 관장의 자리까지 급의환향한 과정의 삶은 애항심이 희박한 서울내기인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영주의 돈키호테 체육선생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다. 다 쓰러져가는 농구대와 축구골대 밖에 없

는 척박한 환경의 강시골 중고등학교 체육선생으로 부임하자마자 사비를 털어서 복싱부를 만들었다.

학생들 체력보강을 위해 운동장 한 칸에 양계장을 마련해 생달걀도 먹고 삼계탕도 끓이면서 록키의 꿈을 키워주었다. 링이 없어 학생 네 명이 줄을 잡고 서서 이동식 링을 만들었고 샌드백이 없어 선생의 몸통을 맘껏 치게 한 결과 아이들의 펀치력은 뛰어나게 늘었지만 선생은 정작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다섯 명의 학생이 결승에 진출하는 기적같은 쾌거를 이루자 그학교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가을 낙조의 풍경이 으뜸 중 으뜸이라는 청량산이 좋아 산지기가 된 이 선생은 50년 동안 열심히 산 속세의 삶을 뒤로 하고 산막사에서 오가는 길손들에게 구정차라는 정신이 맑아지는 차도 대접하고 달마도도 그리고 도자기도 구우면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즐기고 있다.

선천성 신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모녀는 안동사람들에게 진 신세를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글썽 거렸다. 딱한 처지를 알게된 반 친구들이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이 안동시민들의 큰 정성으로 번졌고 그런 사연에 감동한 어느 병원에서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를 의술로 대신해 건강을 찾아주었다.

소녀의 소원은 자신과 같은 가난한 환자들을 치유해주는 천사 의사선생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내의 낯선 곳으로의 여행, 막내의 자연친화적인 체험, 그리고 다른 이의 삶을 듣는 나의 방송여행이 이 새해에도 의미있게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족의 인생과 가치관도 분명히 아름다워질 것이다.